



‘혼’ 실린 호투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2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 5이닝 3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다.

김광현, 시즌 2승 수확

『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시즌 2승을 수확했다.

김광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 5이닝 3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달 23일 신시내티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승을 올렸던 김광현은 이날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08에서 무려 0.83으로 끌어내렸다.

이날 김광현은 92마일(148km)에 이르는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앞세워 신시내티 타선을 제압했다. 스트라이크존을 폭넓게 활용하는 제구력과 주무기 슬라이더가 주효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 초반부터 폭발한 타선의 지원도 김광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김광현은 이날 편안하게 마운드에 올랐다.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은 1회초 신시내티 에이스 소니 그레이에게 5안타로 6점을 뽑아 강판시켰다. 2회 두 번째 루카스 심스를 상대로 브래드

MLB 신시내티와 원정경기서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

세인트루이스, 16-2로 크게 이겨

밀러가 투런 홈런을 날려 해기를 박았다.

김광현은 1회말 선두타자 조이 보토를 상대로 풀 카운트 끝에 볼넷을 내줬다. 심호흡을 한 김광현은 다음타자 닉 카스테야노스를 유격수 땅볼로 유도해 병살타를 이끌어냈다. 이어 김광현은 맷 데이비슨을 5구 만에 결정구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2회도 순항했다.

김광현은 직구, 커브와 함께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선두타자 에우헤니아 수아레스를 삼진으로 잡아냈다. 마이크 무스타카스 역시 슬라이더로 삼진을 속아냈다. 이후 아리스티데스 아퀴노에게 풀카운트 끝에 볼넷을 내줬지만, 호세 가르시아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고 이닝을 종료했다.

9-0의 리드를 안고 3회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

은 아키야마 쇼고를 9구 만에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그러나 커트 카살리와 보토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1사 1, 2루 위기에 처했다.

김광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카스테야노스를 또다시 유격수 병살타로 처리했다. 김광현은 몸쪽 직구 2개에 이어 바깥쪽 직구를 던져 범타를 유도했다.

김광현은 4회 1사 후 수아레스에게 3루선상으로 빠지는 2루타를 맞았다. 그러나 김광현은 중심타선을 상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무스타카스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후 아퀴노를 3루수 앞 땅볼로 잡아냈다. 또다시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했다.

김광현은 5회 첫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가르시아와 아키야마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김광현은 카살리를 몸쪽 낮은 슬라이더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세인트루이스는 6회까지 무려 18안타를 때려내 13점을 올렸다. 이날 23안타를 친 세인트루이스는 16-2로 대승을 거뒀다.

3연승을 올린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14승13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선수 확진자 발생

최대 위기 직면한 프로야구

“자가격리자 되면 출전 불가능”

어렵게 출발한 2020 KBO리그가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수 확진자의 발생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처음 선수 확진 소식이 들린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고열 증세를 보인 한화 이글스 재활군에 머물던 투수 신모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루 뒤인 1일에는 육성군 소속 투수 김모씨가 추가 확진자로 밝혀졌다. 재활군과 육성군 등 97명의 한화 퓨처스 선수단 검진 대상 중 45명이 음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5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막 후 4개월 가량 확진자 0을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방역에 성공해 온 프로야구계는 선수 확진자의 발생에 발칵 뒤집혔다.

일단 퓨처스리그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한화가 속한 북부리그는 이번 주까지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KBO는 한화의 경우 다음 주에도 경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1군 경기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 KBO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 접촉자(자가격리 대상자)의 범위가 리그 진행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시 긴급실행위원회를 통해 중단을 논의한다.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1군 선수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가 나오면 리그의 중단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얇은 선수층에 허덕이고 있는 한화는 이번 사태로 운용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50명의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자가 분류되면 정도에 따라 해당 선수는 일정 기간 출전이 불가능하다.

상당수가 자가격리자가 될 것으로 보여 한화는 2군에서의 콜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신모 선수와 밀접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현 1군 선수 2명의 출전도 장담할 수 없다.

KBO 관계자는 “보건 당국에서 어제부터 CCTV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를 확인 중이다. 자가격리자가 되면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수아레스, 유벤투스 이적 임박?

외신 “원칙적 합의”... 바르셀로나와 계약 정리시 절차 밟을 듯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에서 리오넬 메시와 한술밥을 먹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스카이스포츠는 2일(한국시간) “유벤투스의 수아레스 영입이 임박했다. 구단과 선수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루과이 출신 공격수 수아레스는 리버풀(잉글랜드)을 거쳐 2014년부터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다. 메시,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와 함께 MSN 라인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새롭게 바르셀로나의 지휘봉을 잡은 로날드 쿠만 감독을 통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쿠만 감독이 수아레스에게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수아레스는 바르셀로나에서 총 283경기에 출전해 198골을 기록, 날카로운 공격력을 증명했다.

2015~2016시즌 40골로 라리가 득점왕에 올랐고, 2015~2016시즌부터 3연속 도움 1위를 차지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중심으로 유럽 정상에 도전하는 명문 클럽이다. 수아레스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다. 바르셀로나와 수



수아레스의 계약이 정리되면 이적 절차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시도 이적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바르셀로나의 공격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